

뮤추얼 펀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손해보지 않는 뮤추얼 펀드 투자 요령

뮤추얼 펀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박현주 펀드', 'BUY KOREA' 등은 귀에 익숙할 것이다. 최근 주식 시장의 활황과 함께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뮤추얼 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뮤추얼 펀드란 무엇이며, 과연 함정은 없는지 뮤추얼 펀드의 허와 실을 짚어본다.

■글/이승주(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금융팀 연구위원)

주식 시장의 활황과 함께 뮤추얼 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뮤추얼 펀드는 미래에셋투자자문에서 발매한 2천4백억 규모의 4개 펀드로서, 발매한지 2~3일만에 판매가 완료되는 폭발적 인기를 모았다.

뮤추얼 펀드의 최근 투자수익률은 대략 30% 내외이며 일부 펀드의 경우엔 50%를 넘어서는 등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뮤추얼 펀드는 저금리 시대에 확실한 해답을 제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뮤추얼 펀드의 운용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도 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뮤추얼 펀드는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 운용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분배받는 것

뮤추얼 펀드는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그 운용 수익을 주주(투자자)에게 배당금 형태로 분배하는 투자신탁의 형태이다.

언뜻 보면 기존의 수익증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기존의 투자신탁 상품인 수익증권은 투신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정성껏 운용을 하여 그 성과를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계약인데 반해 뮤추얼 펀드는 투자자가 뮤추얼펀드라는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여 투자 성과를 배당 받는다는 법적인 차이가 있다.

이같은 차이점 이외에 뮤추얼 펀드가 기존의 수익증권에 비해 갖는 차이점은 두 가지가 더 있다.

첫째는 수수료가 일정한 수익증권과 달리 뮤추얼 펀드는 일정한 성과를 기준으로 수수료가 변동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익증권의 수수료가 보통 투자 금액의 1% 인데 반해 뮤추얼 펀드는 '1.6% + 성과보수'로 다소 높다.

그러나 이같은 수수료 차이를 단순 비교하기도 어려운 것이 성과 보수가 있는 뮤추얼 펀드의 운용담당자와 운용기관의 수익은 운용 성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수익증권보다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대부분의 국내 뮤추얼 펀드가 성과 보수를 제외하고 있고 수익증권과의 수수료 차이도 크지 않으므로 상품 자체에 대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번째 차이는 뮤추얼 펀드는 수익증권보다 환금성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수익증권은 투신사나 증권사 등의 판매회사로부터 1% 내외의 환매수수료만 내면 투자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반면 뮤추얼 펀드는 일정 기간(대개 1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이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중도에 회수하기 어렵다.

물론 뮤추얼 펀드의 투자 자금도 주식과 유사한 형태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하여 회수할 수 있으나 수익률이 10% 내지 15% 가량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뮤추얼 펀드에 대한 투자는 무엇보다도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환금성이 낮아 돈이 급히 필요할 때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낭패를 볼

뮤추얼 펀드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한다. 일정 기간 동안 환매가 불가능해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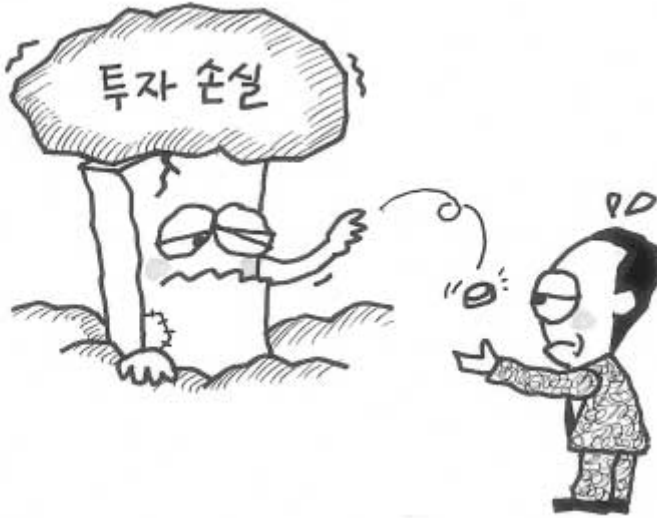
투자하기 전에 어떤 성격을 갖는 펀드인지, 운용회사가 신뢰할 만하지, 운용담당자가 과거 어떤 성과를 올렸는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뮤추얼 펀드는 고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위험도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고위험 고수익상품에 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환금성 낮아 급히 돈 필요할 때 낭패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 볼 수도 있어

대개의 뮤추얼 펀드가 채권보다는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편, 채권을 주로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의 경우 현재의 금리 상황 하에서는 수익증권에 비해 큰 매력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채권형 상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익증권을 권하고 싶다.

이는 금리 수준이 낮고 운용도 3년 이하의 단기 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뮤추얼 펀드의 운용 성과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수수료가 수익증권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자의 입장에서 살펴 보았을 때 현재 수준보다 금리가 상승 반전하는 경우에는 뮤추얼 펀드가 수익증권보다 다소 불리하게 된다.

이는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 설정된 수익증권은 운용 성과와는 별개로 판매회사가 투자 손실을 어느 정도 메꾸어 준 예가 있는 반면 뮤추얼 펀드의 경우엔 말 그대로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어 손실 보전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투자란 은행의 보통예금과 달리 투자자 자신이 투자 위험을 안게 된다. 그런 만큼 투자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의 자금 사정을 면밀히 살핀 후 투자할 뮤추얼 펀드가 어떠한 성격을 갖는 펀드인지, 그리고 운용회사의 신뢰성은 있는지, 운용담당자가

수익증권과 뮤추얼 펀드의 비교

비교 내용	수 익 증 권	뮤 추 얼 펀 드
수수료 체계	· 판매수수료 0.8% · 운용수수료 0.2%	· 판매수수료 0.96% · 운용수수료 0.64% · 초과수익의 20%
투자자의 법적 관계	투신운용사와 계약	주주로서 참여
환금성	판매사에서 항상 환매 가능 (환매수수료)	· 폐쇄형으로 계약 기간중 환매 금지 · 상장되어 매매 가능하나 수익률은 10~15% 할인되어 거래
투자 성향	상대적으로 안정성 중시	· 공격적 운용 ·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음
공사채형	시가 평가 대상이 아닌 수익증권은 제시 수익률 보장 가능	시가 평가로 원금 손실 가능



과거 어떠한 운용성과를 보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 시점에 따라 수익성 좌우
만기 시점의 주가·금리 수준도 고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한 후 성과를 배분하는 구조인 뮤추얼 펀드는 가입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서도 수익성이 좌우된다. 주식형의 경우 주가가 오르는 추세에 있을 때에, 채권형의 경우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을 때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기 시점의 주가 수준이나 금리 수준을 예측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넓히는 노력과 함께 반드시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투자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여건에 따라 적당한 투자 위험과 수익률을 갖는 금융상품군을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선택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참조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본다.☺

이승주 씨는 1968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대우경제연구소 정보통신팀 사업 타당성 분석 업무를 거쳐 현재는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금융팀의 연구위원직을 맡고 있다.

소비자 상담 수신자 부담 전화

080-220-2222



다급한 문제로 소비자 상담을 하려 했을 때 통화가 안 돼 어려움을 겪으신 일이 없으십니까?

지방에서 장시간의 상담을 하고 나서 전화 요금 부담을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상담의 편의를 위해 상담 대표 전화(3460-3000) 외에 수신자 부담 상담 전화(080-220-2222)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소비자 상담, 특히 지방 소비자의 전화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